



[특집1/폭력의 문화를 거슬러: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를 묻는다] 병역 의무의 성별 정치학

저자
(Authors) 권김현영

출처
(Source) [당대비평](#), 2002.6, 39-50(12 pages)

발행처
(Publisher) [생각의나무](#)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63525>

APA Style 권김현영 (2002). [특집1/폭력의 문화를 거슬러: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를 묻는다] 병역 의무의 성별 정치학. *당대비평*, 39-50

이용정보
(Accessed) 조선대학교
220.67.200.***
2021/04/12 17: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병역 의무의 성별 정치학

권김현영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절대 평범해질 수 없어. 우린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 없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목소리를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바오닌,『전쟁의 슬픔』

사실 나는 군 가산점 논쟁 때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었다. 만약 여자가 군대를 가서 모든 불평등이 종식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처럼 보였다. 군인이 되는 것이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 조건이라면, 그 자격의 편파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군인이 되어 그 안에서 주장을 하는 편이 쉬워 보이기도 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논문을 쓰면서도, 때때로 이러한 갈등에 휘말렸던 나는 베트남인 소설가 바오닌의『전쟁의 슬픔』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대단히 위험하며 비성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전쟁을 겪은 이가 정상적인 목소리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바오닌의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욕망은,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국민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인간다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바오닌의 말이 얼마나 빼져린 고통과 슬픔의 언어인지, 얼마나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지독한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군인을 정상적인 국민의 표준으로 보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운 일일 텐데도, 바오닌은 자신을 베트남전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스스로 이미 모순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걸까?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그제서야 나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많은 남성들을 전혀 이해할 마음이 없었던 것을 조금 반성하게 되었다 강제 징집 제도라는 불합리한 제도에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말이다. 군대에 간 후배는 “누나, 여기서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라고 편지에 썼었지. 사실 나는 어떤 종류의 남자들은 평생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 가산점 논쟁부터 ‘월장’(부산대 여학생의 여성주의 웹진의 이름)의 예비역 논란, 대체 복무제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관련된 논쟁의 장을 보면서 나는 바오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찾고자 하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목소리’에 대한 공동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지금에서야 조금씩 시작되는 군대에 대한 비판들이 특정한 소수자만의 문제로 계토화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군대에 대해 정상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군대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동원 논리에 나타난 성별 정치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는 군사적 동원 전략이 성별 정치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징병제하의 ‘끌려간’ 남성들이 이러한 성별화된 동원 전략 속에서 ‘가해자’로 된다는 것을 드러내려 한다. ‘희생자’ 이자 ‘가해자’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의 발견을 통해, 군사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것

현재의 강제 징집 제도는 총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도적·문화적 실천을 통해 국민간의 성별·국적·신체적인 위계를 만들어 내 병역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 특권적 권리를 부여한다. 병영 체험은 한국 사회에서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군인에 대한 비군인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도록 조직된 고도로 정치적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병영으로 찾아간 어머니들 200명의 입소식이 저녁 뉴스에 비춰졌다. 어버이날에 찾아올 수 없는 아들들을 직접 찾아가 2박 3일간 유격 훈련을 받으며 아들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자 했다는 그 어머니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며 아들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거기 비친 아들들은 하나같이 어머니를 보면 눈시울을 붉히고 비장한 얼굴이 되고,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아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애듯한 얼굴이 되었다. 어머니의 병영 체험,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대생과 여자 연예인, 여고생의 병영 체험 프로그램들은 필연적으로 군인들의 구경거리를 위해 만들어진다. 이 체험이 끝난 후에 기대되는 반응은 “군인 아저씨들, 아들들, 애인들이 불쌍했고 고마웠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자에게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구경꾼인 군인에게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마무리되어 『국방일보』와 국방부의 팜플릿에 실린다.

한 남성 장애인의 병영 체험이 구성되는 방식 역시 다르지 않다. “뇌성마비 장애인 ‘DMZ 근무’ 소원 이룬다”²⁾는 제목의 기사는 장애 때문에 징집에서 제

1) 이 글에서는 안보 논리, 한국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징병제를 정당화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군축과 관련된 여타의 논문에서 다루어져 왔고, 사실상 현재 강제 징집이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해석은, 국가의 존립과 부흥이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내면화된 결과이다.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부담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징병제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김창수의 글이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김창수,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2001)

외되었던 한 장애인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1일 병영 체험을 통해 성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고 싶어해 병영 체험을 허락받는다. 그는 군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징집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귀감이 되어 역시 『국방일보』에 실린다.

이렇게 병영 체험은 우리 사회에서 병영에서 제외된 이들이 군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또 군인들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을 군사적 충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중 선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징집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학습하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

눈물을 글썽거리게 하는 감동적인 병영 체험기 이면에는 대체 복무제의 도입과 양심적 병역 거부, 군 가산점제의 폐지라는 군대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숨어 있다. 병영 체험은 군사 정권 이후에 문민 정부가 징집 동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동원 전략을 입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는 병역 의무에 대한 여성들과 징집에서 제외된 남성들에 의한 존경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들끼리의 평등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이것은 성원권의 획득과 연결된다)이다.

‘형평성’이라는 함정

한편 병역 비리에 대한 관심은 남성들끼리의 합의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감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군사 정권 당시 병역 비리 사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군사 정권의 특권화된 지위는 병역 비리와 같은 부패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곧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전체주의적 질서의 내면화가 강하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병역 비리가 문제시된 것은 군사 정권이 몰

2) 『한국일보』 2002년 2월 13일자

락하면서 군대의 권력이 분산되고, 문민 정부가 ‘국민의 군대’를 선언하면서 형평성을 주요한 군사적 동원의 기제로 삼은 후부터였다. 비군인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된 정부는 이제 군부 독재 시스템이 만들어 낸 ‘영웅으로서의 군인’,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군인’이라는 군인의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했다. 이에 문민 정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군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근대적인 시민 복종 체계로 군대를 재배치하려 했다. ‘국민의 군대’ 캠페인의 목적은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총동원 강제 징집을 자연스럽게 전제하면서, ‘최고 권력자’ 이자 때로 국민을 압제하던 ‘군인’ 이미지를 한국 사회의 평균적 시민에 가까운 이미지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³⁾

그러므로 병역 비리 사건들은 징집에 따른 거부감을 높여 군사적 동원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정부는 병역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 인원을 증가하고 병무 비리 척결을 선언하며 국회의원과 관련된 병역 비리 사건에 일별백계를 내리는 등 이러한 비리 척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끊이지 않고 터지는 병역 비리 사건들은 ‘형평성’을 중심으로 남성을 동원했던 문민 정부의 캠페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이러한 병역 비리 문제는 징집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전과는 달리 징집 대상자들간에 특정한 위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간의 위계를 형성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권력층의 자체가 군대를 면제받거나, 군부대 배치에서 생존과 무관한 지역에 배치되는 특권(학력에 따른 행정병 배치)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것(학군단) 등은 병역 의무를 둘러싸고 남성들간의 불평등이 학력·계급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⁴⁾ 그러나 병역 비리 척결에 대한 엄중한 칠날은 주로 젊은 남성 연예인에게 쏟아졌다. 얼마 전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 불허라는 초법적 조치를 내리며

3) 국방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2000)

그를 고의적 병역 기피로 국가 기강을 훼둘리게 한 중대한 범법자로 취급한 국방부의 ‘오버 액션’은, 병역 비리는 곧 시민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을 터이다. 이렇게 연예인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통해 형평성에 대한 아슬아슬한 증명은 해냈지만, 사실상 형평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술자리의 푸념에서 일반화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 의심이다. 특정 권력 층의 병역 비리는 특권에 접근할 수 없는 대다수 남성의 분노를 자극하지만, 이들의 분노는 징집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군대에 가지 않는 모든 남성을 비애국적이며 남성답지 못한 존재라고 낙인찍고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려 한다.

형평성이라는 국가의 동원 논리는 반드시 모두 군대를 가야만 한다는 전제를 전달함으로써, 형평성 원칙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군대에 관한 불만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다. 이때 특권층에 의한 병역 비리와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 동성애자의 입영 반대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한다”는 기준 아래서 같은 문제로 취급된다. 돈과 권력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 했던 권력형 병역 비리의 문제와 학력·계급·인맥 등의 변수를 통해 차등적으로 배치되는 군 배치 문제 등 구조적인 남성들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모두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통과하며 ‘병역 비리’로 취급되는 것이다.

“군대 가야 남자 된다”는 무서운 경고

병영 체험을 통한 군인에 대한 존경심 확보와, 병역 비리 척결을 통한 형평성의 강조가 국가와 군사 조직에서 즐겨 사용하는 동원 전략이라면, 남성다움과 군인다움의 연결을 통해 병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군사적 동원을 정당화하도록 애쓰는 것은 국가와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개별 남성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

4)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 충동원 체계인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 학교가 따로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1~2년의 기간 동안 지난 사병을 대상으로 장교 신청을 받고 적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선별한 다음 본격적인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논문을 쓰면서 만난 한 징집 거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군사적 동원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워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가 본격적인 군대 반대론자가 된 것은 군대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쓴 후 예비역 남성들에게 집단적 공격을 받은 이후부터였다 그는 군대를 반대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결국 '요주의 리스트'에 등록되어 경찰에 불려 가게 되었는데, 경찰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의 글에 분노한 예비역 남성들이 그의 개인 아이피를 추적해 게시판에 공개하고, 한 인터넷 웹진의 기자가 그의 주장과 얼굴을 공개하면서였다 병역을 거부하자마자 국가와 남성 양측으로부터 처벌받고 감시받고 배제당한 그의 이야기는 병역 의무를 통해 개별 남성들이 국가를 이용한 남성화된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금 대체 복무제의 도입, 양심적 병역 거부권,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비겁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집총 거부를 하는 여호와의증인에 대해 많은 남성들은 "그럼 대신 지켜 달라는 거냐?"며 비웃는다. "대신 지켜 달라는 거냐?"는 말 이면에는 '남자답지 못하게' 혹은 '여자같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군인화와 남성성의 밀착은 병역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를 병역 의무에서 기피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이해하도록 종용한다 군사적 동원을 정당화하는 남성다움에 대한 정의(군대 가야 사람 된다/ 남자 된다)는 남성들로 하여금 군대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심지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군대에 가는 것과 남성답다는 인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동원의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해 인로⁵⁾는 군인(soldering)과 남성(manhood)이 되는 것을 최대한 밀착시킬수록 징집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군인이 되는 것과 남성이 되는 것을 밀착시키는 기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군인성과 남성성을 연결시키는 관행은 군

5) Cynthia Enloe, *Does Khaki Become You* (London, Winchester, North Sydney and Wellington Pandora, 1988)

대에서뿐만 아니라 군대를 가기 전후에 가족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남자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와 가족, 주변의 친구들에 의해 남자다움과 군인다움이 동의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학습받는다. 가족과 학교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남자아이들은 “군대라면 죽었어”라든지 “군대 가야 정신차리지”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군대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군대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군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은 곧 남성으로서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굴욕적인 일로 취급된다.

남성들간의 성별 위계

신체 검사장과 훈련소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남성 신체를 가졌다고 증명된 남성들은 자대 배치 이후에 철저한 신체 규율 권력을 통해 통제와 관리를 받는 위계 질서에 적응하도록 추인된다. 인터뷰를 한 남성들의 대부분은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자는 법과 먹는 법, 화장실 가는 법부터 하나하나 완전히 새로 배우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폭력이었다고 말한다. 입대 후 군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이렇게 의식주의 기본 권리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낯선 환경에서 ‘무력한’ 상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인 ‘획일화’와 ‘위계화’는 부대에 배치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자대에서 이루어지는 위계 질서의 체화 과정은 신병 길들이기로부터 시작된다. ‘고참’들은 신병들에게 ‘나이’, ‘학벌’, ‘계급’과 상관없이 군대 내 위계 질서에서 최하위에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우선 신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신병의 나이, 학벌 등에 부착된 사회적인 위계를 탈각한다. 이것은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받아들이기 위한 최초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군대에서 계급은 단순히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확장된다. 신병은 맞지 않을 권리가 없다. 때릴 권리도 없다. 고참은 맞지 않을 권리도 있고, 때리거나 때리지 않을 권리가 모두 있다. 구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신병에게 맞지 않을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신병의 맞지 않을 권리와 군대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타는 상호 배치되는 권리이다. 이때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고참의 '구타를 할 권리'는 신병의 '맞지 않을 권리' 보다 우선된다. 신병에 대한 구타는 계급으로 통칭되는 군대 사회의 가치와 명분을 획득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권리로 주어진다. 하지만 구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설령 구타를 하는 사람이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한 성향이 군대에서 '정상' 적이거나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 성향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성향에 그치지 않고 군대 내의 제도화된 일부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사병들간에 위계 질서를 잡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부대 내의 '기사 노동'적인 '집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부대의 고참은 이런 '여성적인' 일에서 벗어나면서 권위를 획득한다. 이렇게 군대 내 역할 분담은 극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병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고참의 권리이자 '훈육'의 의무라고 정당화되곤 한다. 이러한 군대 내 성 역할 규범에 따른 위계 질서와 폭력은 현실 가족에서 나타나는 아내 폭력의 문제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 고참이 신병을 구타하는 것이 부대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이듯이, 아내 폭력의 가해자를 역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가족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한다. 아내 폭력은 성 역할 규범에 따른 가족 내 역할 분담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부터 나오며,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가부장적 기족 문화가 아내 폭력을 조장한다. 정희진⁶⁾은 '남편'의 권리 안에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집단적 남성성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군대의 성별 제조법에서 군대에 적용하지 못한 남성은 남성답지 못한 '여성적인 존재'로 전락하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가는 단순히 놀림감이 되는 데 그

6) 정희진, 「아내 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치지 않고 남성들간의 경쟁에서 배제되기에 이른다. 쿠네(kuhne)⁷⁾는 지배적 남성성이 남성과 남성간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여성 전반에 대한 우월감으로 회석시키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되는 남성을 여자 같다고 취급함으로써 지배적 남성성에 균열을 냄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사례는 군대 내 남성들간의 성폭력과 남성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대는 남성 동성애의 위협으로부터 남성성을 보호하려 한다. 군대는 남성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위협하는 호모섹슈얼한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적 남성성의 권위를 해손하기 때문이다. 동성간의 성폭력과 남성 동성애에 대한 질문들은 이성애자 남성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성애자라고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는 한 남성은 동성간 성폭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성들간의 성폭력은 남자와 여자간에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주변에 그런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충격이 커서 정신 병원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해서 남자답게 극복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장난'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여성스러운' 일로 취급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동성간 성폭력이 사소화되고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동성간 성폭력의 가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동성애를 폄하하고 회화하기도 한다.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남자답지 못함에 대한 배제와 처벌은 곧 여성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가 훨씬 더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남성들만이 모여 있거나 성욕을 풀 곳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

7) 토마스 쿠네 외, 『남성의 역사』, 조경식 박은주 옮김 (술, 2001), 47쪽

는 군대에서 만들어지는 남성다움의 정의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정의로 내려 지기 때문이다 티커너⁸⁾는 ‘남성 전사의 미화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러한 성 형화된 남성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한 젠더 이분법을 생산해 낸다’고 지적한다. 이때 군대에서 정의되는 지배적인 남성성은 주로 비하된 여성성과의 관계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은 항상 열등한 존재이자 남성다움의 상대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게 된다. 감정과 관계 등의 가치는 여성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철저하게 배제된다.

보통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사적인 지식을 많이 알거나(페니스를 대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운동을 잘하거나(강한 신체적 우월성을 확보했거나), 여자를 잘 다루는 것(튼튼한 페니스를 증명하는 것)이 그 남성다움을 증명한다고 여겨진다. 이 중 여자를 잘 다루는 것은 곧 페니스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대에서 양산되는 여성 비하 담론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인 포르노 공동 관람, 음담패설, 성 경험 공개, 성매매 등은 모두 여성과의 관계에서 접두되는 지점을 ‘페니스’로 한정시키는 담론과 실천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성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성기 중심적 성행위만을 묘사하도록 요구된다. 이때 성 관계는 주로 ‘따먹고 따먹히는’ 관계로 묘사된다. 이것은 성행위가 남성들에게 정복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페니스는 그 충족을 위한 무기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군대에 간 남성들 사이에서 성행위가 극도로 대상화되는 것에 테렐라이트⁹⁾는 남성 군인들이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남성다움을 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므로(감정은 여성스러운 것이므로), 이들은 성관계를 묘사할 때 무기와 폭력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거나(정복/페니스의 무기화), 상대 여자를 살아 있지 않은 대상(여성의 비인격화/대상화)처럼 묘사한다는 것이다.

8) 안 티커너,『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 옮김 (부산외대 출판부, 2001)

9) Klaus Theweleit, *Male Fantasies* (Minneapolis: Minnesota Press, 1997), 45~63쪽

안보와 군대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군대와 여성/남성과의 관계를 둘러싼 질문과 언술은 여성과 남성이 국가에 어떻게 '포함'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국가와 군대가 어떠해야 한다는 물음으로 나야기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물음을 바탕으로 국가와 군대, 개인과의 관계를 이전의 전체주의적/국가주의적 틀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인 새로운 틀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국가의 긴급한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에 대한 권리가 항상 집단에 대한 권리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부국강병의 자주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주의화되었던 한국 사회는 이제는 국민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시민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야기야 한다. 개인화가 사회적 무질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가정은 전체주의적 사회가 내면화시킨 논리이며 개인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했다. 한국 사회는 오히려 군사화가 사회적 불의와 무질서를 양산해 왔던 사회이다.

강제 징집에 따른 개인적 희생을 강권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하려면, 애국자와 남성이 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징병 제도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로서의 자각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강한 남성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안겨 줄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국제적 분쟁의 종식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포함한 불공정한 사회 관계를 제거할 때, 다시 말해 모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때 비로소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

권김현영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졸업 석사 논문으로 「병역 의무와 근대적 국민 정체성의 성별 정치학」을 썼다. 공저로 『20세기 여성 사건사』, 『페니스 파시즘』이 있다. E-mail sidestory@freechal.com